

새로 나온 책

지구에 사람이 줄면 과연 절망적일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의하면 2067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6.5%로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45.4%로 쪼그라든다. 인구가 사라지는 사회에 대한 불안한 예측이 무성하지만 실효성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인구 감소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걸까.

책은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관통하며 인구동태와 종의 생존 전략,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경제 변화, 도시와 지방의 인구 격차와 해결 방안, 비혼화의 윤리적 원인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다.

저출생 현상에 따라 세계 인구는 2100년을 전후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과연 절망적인 일일까. 인구가 감소하면 부족한 인력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 책은 인구가 줄어들면 환경 수용력과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회 즉, 생물종에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우치다 다쓰루 외 지음/김영주 옮김/위즈덤하우스

대량화를 추구하는 세계 자본주의 시대가 끝나고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한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돈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금과 달리 이러한 사회에서는 경쟁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할 때 인구 감소 사회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96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ki1@

한 권으로 백 권 읽기

다니엘 최 지음/행복우물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겨울왕국II' 제작을 총괄 지휘한 제니퍼 리 CCO는 성공 비결을 묻는 말에 "어린 시절 책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서습관"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출간된 모든 도서 중 300종을 엄선해 25개 학문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528쪽. 1만4400원.

밀레니얼은 왜 가난한가

헬렌 레이저 지음/강은지 옮김/아날로그(글판)



지난 한 세기를 통틀어 가장 가난한 세대, 밀레니얼이 등장했다. 겨우 8명이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움켜쥐고 있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계약직 일자리에 내몰리게 된다. 밀레니얼들이 사회주의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무려 자유주의의 수호자나 다름없던 서구에서 말이다. 책은 불평등이 심화될 때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보여준다. 밀레니얼을 위한 마르크스식 사회주의 안내서. 267쪽. 1만5000원.

똥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진지하게

로즈 조지 지음/하인해 옮김/카라칼



근게 닫힌 문 뒤에서만 일어나고 입 밖에 꺼낼 때는 조심스러우며 항상 완곡한 표현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행위는 무엇일까? 정답은 배변이다. 저널리스트 로즈 조지는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물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똥에 대해 솔직하지 않으면 위생 문제를 논할 수 없고 화장실을 빼놓고선 인류의 평안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곳곳의 분변의 현장을 탐험하는 책. 480쪽. 1만6800원.



반려동물과 공생하는 아파트·오피스텔 각광

펫코노미 시대

펫주책

반려인 1000만시대.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른바 '펫팜족'을 위한 맞춤형 공동주택이 늘고 있는 이유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에 이웃으로부터 눈총을 받았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반려동물이 이제는 사람의 주거환경까지 바꾸고 있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25.1%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39.2%가 과거에 길러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중 반려동물 양육가구 85.6%는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말에 동의했다.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택' 건립

그러나 일반 주거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사람은 물론 반려동물에게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다. 이웃에게는 소음과 냄새 등으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려견주택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서울 사당동에 건립중인 '펫 오피스텔'은 이러한 반려인의 고민을 해결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 오피스텔은 총 86가구로 오는 10월 입주한다. 펫 오피스텔은 '반려동물 공생주택'으로 불리며, 오피스텔 전세대에서 반려견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반려동물 친화형 건물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펫도어'다. 반려견이 화장실 문이 열려 있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설치한 문이 바로 '펫도어'다. 또 건물 내부 바닥재를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마감해 반려견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욕실에는 '반려견 전용 샤워기'도 설치된다.

또한 소리에 민감한 반려견을 고려해 소리 대신 불빛으로 알려주는 초인등도 도입된다. 펫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반려동물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때 '펫버튼'을 눌러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엘

사당동에 '펫 오피스텔' 조성중 전용 샤워실·엘리베이터 등 설치 교육·체험·캠핑·도그풀 등 펫 친화형 '복합테마파크'도 유기동물센터 등 지자체도 가세

리베이터에 반려동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반려견주택연구소는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펫 전원주택', 중랑구 망우동 '펫 빌라' 등을 시공했다.

◆복합테마파크, 타운하우스 등 증가

테마파크와 타운하우스 등 반려동물 친화형 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한미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 대규모 '반려동물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길동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스텔 133호실, 강원도 횡성 펜션(3만9669㎡ 55개 동 150실 규모), 경기도 양평 테마공원(3만8525㎡ 규모), 제주 서귀포 리조트(7457㎡ 4개 동 19실 규모)로 타운을 형성한다.

한미금융그룹은 내년 상반기 서울 길동, 강원도 횡성, 경기도 양평, 제주 서귀포에 주거, 휴양, 체험, 교육 시설을 갖춰 분양한다. 반려동물 전문시설로는 도그런, 도그풀, 교육&체험프로그램, 반려동물 스튜디오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조경 시설, 캠핑 카라반, 글램핑 하우스 등을 각 부동산 콘셉트에 맞게 설치한다.

한미금융그룹은 이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반려동물 전문가, 인테리어 및 시설 전문가, 반려동물&법률 자문단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향남 더플라체 운동장마을'은 소음이 적어

반려동물을 키우기 적합한 타운하우스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전 세대 모두 넓은 앞마당과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건물 사이공간에 앞마당과 연계 가능한 중정형 테라스로 계획돼 반려동물이 뛰어놀기 좋고, 소음과 사생활보호에 강하게 설계했다.

◆지자체, 반려동물산업 시장에 한 수

지자체도 반려동물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강원도 춘천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또 강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견 펜션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대상은 애견 전문 펜션과 애견 동반 가능 펜션이며 춘천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애견 펜션을 모집할 예정이다.

조직화된 애견 펜션은 향후 반려견 동반 물레길 카누, 수상 스포츠 체험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하부구조도 탄탄하게 다진다. 우선 반려동물 산업 육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동물산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방안을 찾고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도 건립한다. 2층 규모의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현재 공사중인 동물보호센터 옆에 들어설 예정이며 1층에는 교육장, 2층은 카페로 구성한다.

박준영 반려견주택연구소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반려동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진소음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이라며 "일반주택과 달라 입주자들이 높은 주거 안정성과 만족도를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日·홍콩 막힌 항공사들... 베트남 하늘길 개척 경쟁 치열

근거리 노선 대안으로 빠른 성장세 뱀부항공·비엣젯 등越항공사가 개척한 베트남 관광객 수요는 속세로

대표적 단거리 노선이었던 일본·홍콩에 수요가 줄면서 '베트남'이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는 모습이다.

최근 일본과 홍콩 등 기존 인기 노선이었던 지역에 여행보이콧·시위장기화 등이 잇따르면서 또 다른 단거리 노선인 '베트남'이 여행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뿐 아니라 베트남 국적의 항공사들도 신규 취항하며 한국 여행객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나섰다.

반면 베트남으로 향하는 한국인 대비 방한하는 베트남 관광객의 규모가 작아 인바운드 시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최근 베트남 지역에 신규 취항하는 국적 항공사들이 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6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베트남 나트랑으로 가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호찌민과 하노이, 다낭, 푸꾸옥에 이은 아시아나항공의 5번째 베트남 노선이다.

에어부산도 지난 26일부터 부산-나트랑 노선의 부정기편 운항에 나섰다

며 국적 LCC인 에어서울도 지난달 16일 하노이, 18일 나트랑에 취항하며 다낭을 포함해 베트남 노선 3개를 운항 중이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노선 신규 취항 배경에 대해 "우선 수요가 있어서다. 줄었던 일본 노선의 기재를 베트남 노선으로 돌렸다. 다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며 "요즘에 베트남을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하기도 하고 특히 나트랑의 경우 '제2의 다낭'으로 몇 년 전부터 뜨고 있는 도시라 취항을 하게 됐다. 베트남 수요가 요즘 많이 늘고 있는데 공급이 늘면서 수요가 따라오는 것도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노선에 투입했던 기자재들이 여유가 생겨 동남아 쪽으로 노선 다각화 차원에서 돌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베트남을 찾는 한국 여행객들이 늘면서 이를 공략하고자 하는 베트남 국적의 항공사들도 한국 시장에 신규 취항하고 나섰다. 베트남 국적의 뱀부항공은 지난해 10월 17일 인천-다낭 노선을 대상으로 첫 정기 국제 노선에 신규 취항했다.

이어 11월에는 인천-나트랑 노선 운항에 나섰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인천-하노이 ▲인천-호찌민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다. 또 다른 베트남

국적 항공사인 비엣젯도 오는 15일 인천-달랏 노선, 16일 인천-견터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한편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 대비 방한하는 베트남 관광객이 적어 인바운드 수요를 늘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베트남으로 출국한 한국인(33만 9560명) 대비 방한한 베트남인은 4만 3617명으로 규모가 약 7.8배가량 차이난다. 또한 최근 들어 일본과 홍콩 등 근거리 노선에 연일 이슈가 터지면서 수요가 줄자 그 대체 노선으로 베트남이 각광받고 있어 한국인의 베트남행은 더 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베트남 출국자 수는 각각 ▲7월 27.4% ▲8월 25% ▲9월 49.4% 증가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